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 우수사례집

학생도 기업도 앞서가는 치트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기회!

교육부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 우수사례집

CONTENTS

학생

• 경일대학교	오세민	6
• 목포대학교	김은혜	10
	김준아	12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종윤	16
	함윤정	20
• 전남대학교	이찬희	24
	최수인	30
• 한양대학교 ERICA	김문선	34
	김선아	40
	심지훈	44
	최민서	48

기업

• 대동테크	경일대학교	54
• 삼일금속㈜	한양대학교 ERICA	58
• ㈜승진엔지니어링	전남대학교	62
• ㈜한국항공조명	목포대학교	68
• ㈜한중엔시에스	경일대학교	74

사회 첫발,
남들과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

part –

01

학생

- **경일대학교** 오세민
- **목포대학교** 김은혜 / 김준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종윤 / 함윤정
- **전남대학교** 이찬희 / 최수인
- **한양대학교 ERICA** 김문선 / 김선아
  심지훈 / 최민서

01

경일대학교

남들 취업 준비할 때 나는 자기 계발한다!

• **오 세 민**

저조한 청년취업률 무시 못 해

오세민 학생은 무엇보다 학비 걱정 없이 4년제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저조한 청년취업률도 무시할 수 없었고 취업 준비를 인턴보다는 정직원으로 프로젝트 실무자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한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 학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면서 알찬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취지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것에 박수를 보냈다. 회사에서 일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자연스럽게 심화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이 업무 능력 또한 향상해주니 전공이해도가 높아져 윈-윈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공부에 욕심이 생기고 학업 성취감이 커

고등학교 때는 로피탈의 정리, 플레밍의 왼손법칙, 파열음 파찰음 등 '이걸 활용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의욕이 안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실습과목이 많아서 수업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성취감이 크고 지금 하는 공부가 내년에 바로 활용됨을 알기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학기가 거듭할수록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뿌듯했습니다. 학업적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취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스펙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남들 취업 준비하는 시간에 어학 공부도 하고 해외체험도 하면서 독서까지 여유롭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현대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이자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곳의 학생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에 대해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위해 연구하면서 산업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만족스러운 걸 꼽자면, 현직 PL(Project Leader)급인 분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오랜 경험과 정보들을 통해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6~7년 일찍 접한다면, Advanced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잠재력이 가장 기뻤습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학교와 회사를 선택할 때 고민이 된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특성상 회사에 입사해야 입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회사를 선택할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으며,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공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 산업에 대해 검색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직자들의 리뷰나 회사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회사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래보다 빠른 취업, 남다른 목표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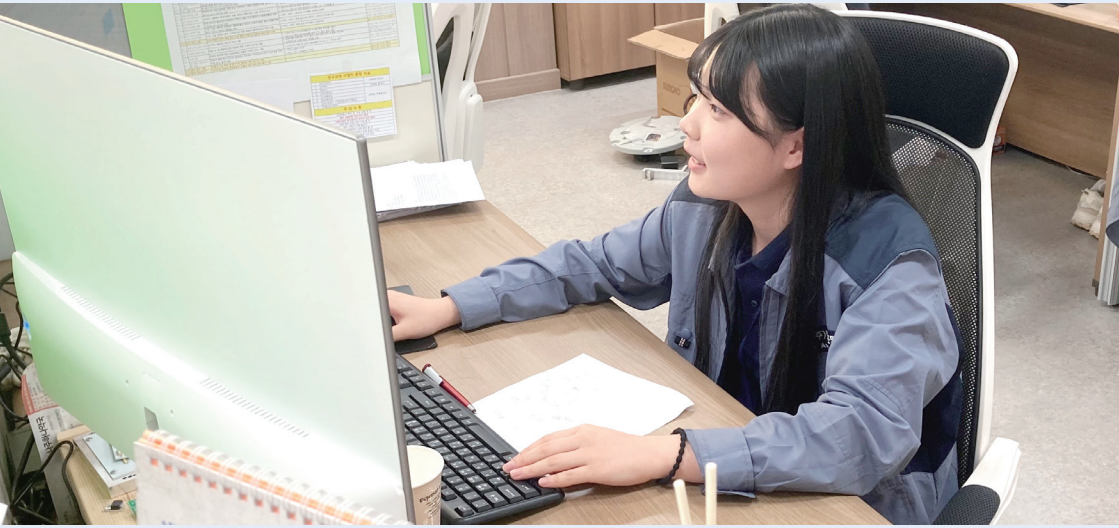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만큼 나중에는 더욱더 유능한 선임, 팀장, 경영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취업이 됐다고 안도하지 말아야 하며 꾸준히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써야겠습니다."

한편,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발굴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홍보한다면 더 좋은 기업이 경일대 학과와 협약을 맺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인재가 참여해 선순환을 일으킬 것 같다는 바람도 내놓았다.

02

목포대학교

대학 진학과 입학을 동시에 해결하는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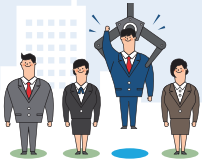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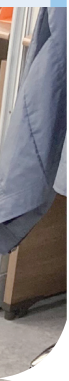
• **김 은 혜** ㈜한국항공조명

탁월한 선택

요즘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다. 김은혜 학생은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던 중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됐다. “대학 입학과 등록금 지원은 물론 취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조기취업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만큼 큰 장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대학 학생들과 달리 학업과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저 역시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으나 현재는 좋은 기회였고 잘 선택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상 깊었던 일?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배운 설계 기술로 회사에서 납품하는 PCB를 설계하고 제작해 보는 일. 첫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뿌듯할 것이다.

"제가 설계하고 제작한 PCB가 제품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회사에서 똑똑해지는 느낌

"학업에서 배운 회로 이론 지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김은혜 학생은 PCB 설계와 제작을 처음 해봤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흥미도 느끼고 짧은 시간에 기술을 배운다며 선임들에게 칭찬을 받아 숨은 능력을 발견하듯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톡톡히 적용하니 없던 자신감도 생길 것이라 예상한다.

나의 발전 가능성, 적성을 따져보자

"공부하며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차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배우고 있는 전공 분야와 실제로 맡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음에 만족감이 크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많이 없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더 취득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더 크게 키울 가능성에 기대가 됩니다."

03

목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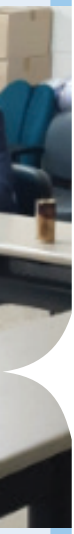
이렇게 좋은 제도, 널리 널리 퍼지길!

• **김 준 아**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

새로운 선택이자 기회

군 전역 이후 잠깐의 자취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배움과 경험은 자신에게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김준아 학생.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 들어가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일정 비율을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에 들뜬 마음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 새로운 선택에 고민이 많았다. 뒤늦은 후회라는 압박감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지에 대한 고심 끝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 많은 혜택도 선택에 한몫 했습니다.”



잊지 못할 선물

김준아 학생은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을 느끼지만 뿌듯함도 느끼고 있다.

“실습 기관 담당자분께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노트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다며 본인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을 했다. 또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 발전 방향성을 찾는 것조차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장학금 줄고 학자금 대출 늘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달라!

김준아 학생은 ‘대학생 46만 명 빚더미... 장학금 줄고 학자금 대출은 늘어’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진학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을 전했다. 이곳에서는 현장실습, 기업체 근무, 야간 심화 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상급자를 보고 배우며 개선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 성취감도 느끼면서 경력을 쌓고 학위 이수까지 한다는 점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국립목포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의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담당자님 분들과 힘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열정적인 교육, 현장실습 등을 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에서 변화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누린 기회 누리길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학년 등록금 전액지원과 이후 등록금은 본인이 25%만을 부담하는 것. 경력과 학위를 보장받는다는 점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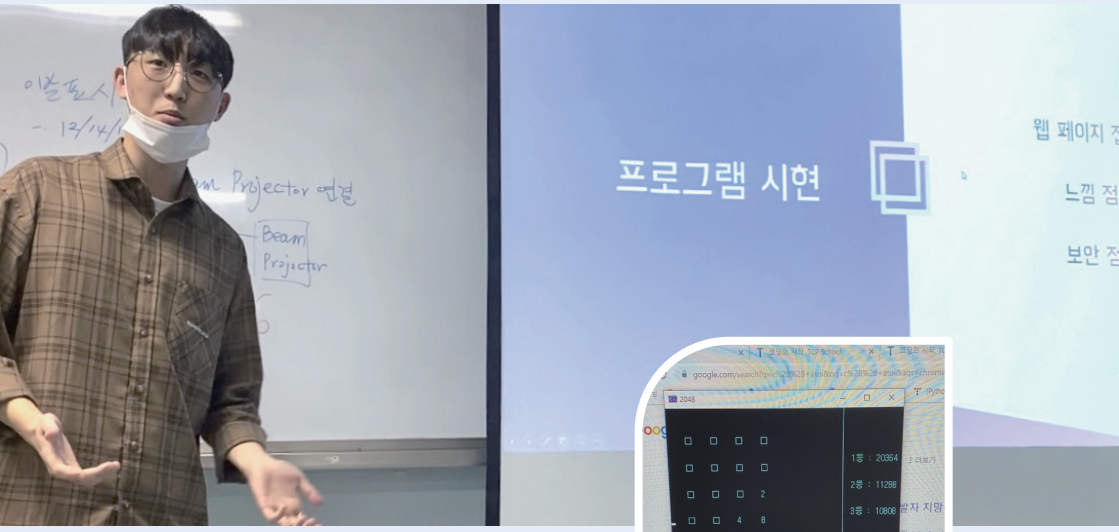
"대부분 이런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냐는 반응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아 학생은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후회 없는 결과 달성을 원한다며 주위에서도 격려와 응원을 받으니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0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학년 같은 3학년, 우리만 가능해!



- **이 종 윤** ICT융합공학과 / ㈜이레테크

학업과 업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IT 계열 직업 특성상 실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해 진학을 결심한 이종윤 학생.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으로 꼽았다.

남들보다 1년을 앞서가는 여유

특히, 4년제 학사학위를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4년동안 이수할 학점을 3년 동안 배분하여 듣는 형태이지만, 남들보다 1년 빠르게 학위를 취득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 전했다.

"주위에 재수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2학년일 때 저는 졸업 연도라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빠르다는 게 크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학년 등록금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며 2, 3학년의 학비 50%를 지원한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은 넣어둬 (걱정과 우려는 응원과 부러움으로)

처음에는 모두 걱정이 앞섰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어린 나이에 힘들지 않겠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끝내 진학을 결정했다. 현재 2학년으로 학교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종윤 학생은 오히려 당당하다. 그 이유는 처음과 다른 긍정적인 반응 덕분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형 역시 본인도 입학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똑같이 지원했을 거라는 말도 전했다.

"심지어 SW 계열에 대학 학과에 졸업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여러 지인과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밥 사주는 게 저의 또 다른 재미가 되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업무에 적용해 실력향상과 좋은 이미지 전달

학교와 회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공통부분의 접목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자세히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 학교에는 아직 선배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경력이 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 열정적인 자세는 당연하고 최대한 개발자의 지식을 얻겠다는 노력으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학업에도 성실히 임한 결과, 학점도 좋게 나왔고 회사에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배운 것을 백 퍼센트 활용하는 기쁨

꾸준히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한 결과, 기분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평소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백 퍼센트 활용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실전에 활용하면서 실력이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찾은 나의 숨은 능력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은 바로, 고객 요구사항이다.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과정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프로젝트를 위해 고객사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율과 추가적인 부분을 되물어 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무엇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와 학업성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2학년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과 학위 둘 다를 챙긴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망설이는 후배에게 한마디

일반 대학과 다르므로 많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학과임은 틀림없다.
이종윤 학생 또한 이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저에게는 맞는 학과라 생각하여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망설이는 후배들도 신중하게 고민한 후 진학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이종윤 학생의 결론은 이렇다.
"저는 저희 학과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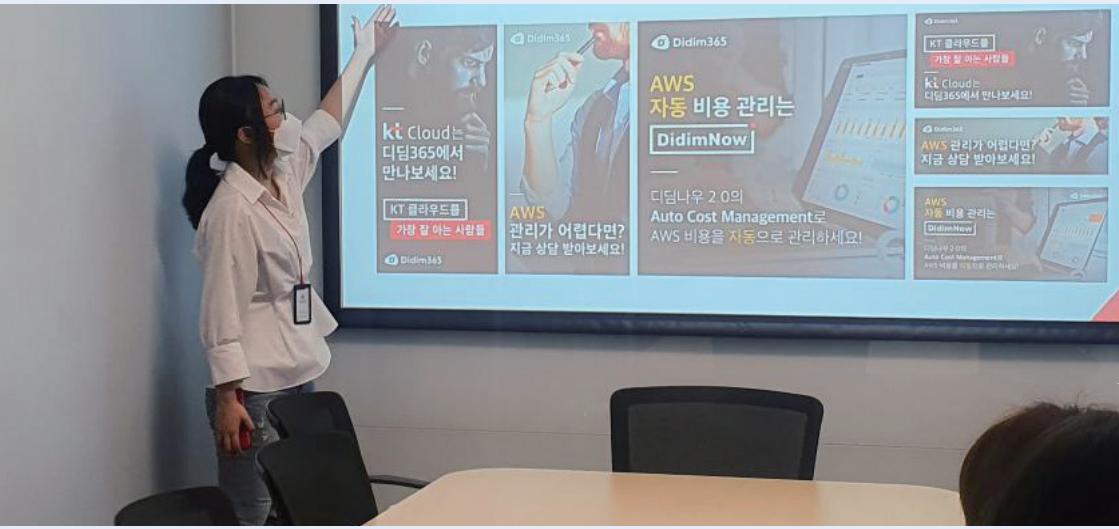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이종윤 학생의 목표는 단호하다.
"앞으로 회사에 다니며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 때,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을 늘리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영어 공부와 경력에 도움이 될만 외부 활동(Toy 프로젝트)을 추가로 할 예정이며 학과 관련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를 드러냈다..

0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이지만 포트폴리오는 채워져!



- **함 윤 정** 창의디자인학과 / 디딤 365㈜

담임 선생님 권유로 진학했지만, 지금은 만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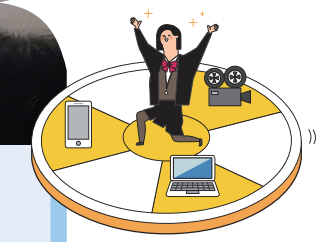
함윤정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말, 취업을 준비하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됐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며 취업과 대학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누구보다 만족하고 있다. "원래라면 6~7년이 걸려야 하는 결과물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단 3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를 배우고 돈도 모으면서 학사까지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입학 후에는 장학금이나 등록금 등 금전적인 지원도 꽤 크다는 것에 학생들의 만족감이 컸다.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분야에 열심히 임한다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되어 만족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다

'잘 생각했다.', '잘됐다'라며 축하를 받고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부모님이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지금 상황에선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강력히 지지해주셨다고. 다른 주변인들 반응 역시 좋았다고 한다.

"다른 길을 간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혹시 본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하나씩 채워지는 포트폴리오



평소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던 탓일까. 3D 디자인 분야와 영상 기획부터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기뻐하는 함윤정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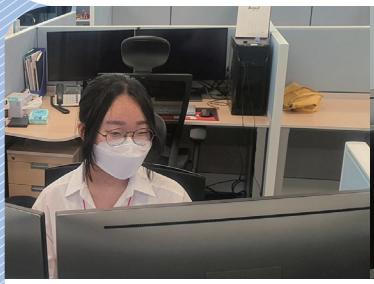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실무에서는 회사에 맞춰진 또 다른 결과물을 내어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하나하나 채워지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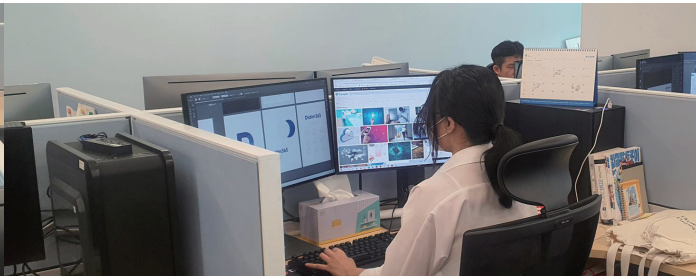
본인이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홈페이지 유입률이 높아지고 직접 그린 그림을 웹툰 형식으로 만드는 일. 이 과정을 겪으며 누구보다 만족스러워했고 많이 성장했다고 전했다.

영상 편집과 3D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재능발견!

대학 교육과정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고등교육과의 차이를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윤정 학생 역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공학을 융합시킨 지식이나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에 놀랐다.

"3D부터 각종 디자인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어





새롭고 좋았습니다. 덕분에 영상 편집이나 3D 애니메이션 같이 전에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책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조금씩 독학을 하며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교육과정 보니 빨리 배우고파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보니 새로운 기술에 맞춰 디자인과 융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서 기대 중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될 것이고 박학다식한 건 디자이너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학생이자 사회 초년생에게 '회사 생활'이란?

일과 공부를 함께하면 힘들고 또래보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은 버거울 만도 할 텐데, 함윤정 학생의 답변은 풋풋하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역시 직장 상사분에게 칭찬 들었을 때죠. 잘하겠다고 노력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도록 도와주신 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직장, 첫 상사에게 듣는 '첫 칭찬'이란 누군가에게는 꽤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함윤정 학생은 회사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게 되고 졸업 후 의무 근로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분야만 보고 지원하지 말고 '학습계획'과 회사의 '인재상' 미리 짚어보기

"대충 분야만 보고 지원하거나 '맞겠거니~'하고 지원했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홈페이지나 리플릿에서 안내하는 학습 계획에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기업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짧아도 3년은 직접적으로 함께 해야 하므로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적합하고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성향과 적성, 이루고자 하는 일 등을 고려해 최고의 조합인 곳에서 일한다면 피로도는 줄어들고 만족감은 커질 것이다.

06

전남대학교

진학 후 만족도?
절대 후회 없어

- **이 찬 희**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1학년

학습과 취업을 한 번에

이찬희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며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전공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배워 능력을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졸업에 맞춰 취업하길 바랐다. 진로를 두고 의견이 갈린 탓에 갈등을 겪던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통해 2020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된다.

"학습과 취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니! 이 학과에 입학하면 멋진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부모님과 긴 논의 끝에 진학을 결심했죠."

취업과 동시에 등록금 해결

"부모님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많은 학생이 취업을 앞두고 그 문턱을 넘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회사에 취업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이 많아 진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결과물을 선물하며 성취감 생겨

"CAD라는 교과목은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라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2D CAD를 배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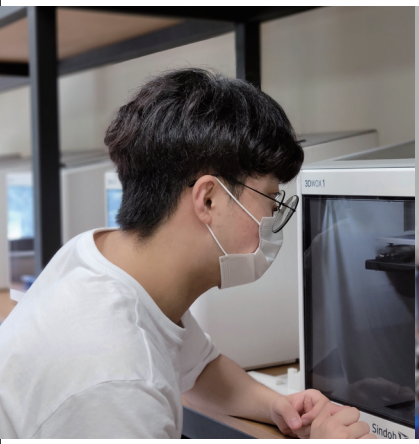
이찬희 학생은 하계 계절학기에서 배운 3D CAD 수업 때 실무와 관련된 것을 경험하고 내년에 접할 현장 직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학과 내 창의융합교육센터에 있는 3D 프린터로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작품을 완성하는 열정까지 갖췄다. 덕분에 3D CAD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모르는 부분에서는 교수님께 항상 여쭤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하트 상자, 대학교 시계, 핸드폰 거치대, 피규어 등 직접 만든 것들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 장비를 보니 학업 욕구가 샘솟아!

"창의융합교육센터에 놓여있는 3D 프린터를 발견하고 빨리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 인벤터와 Solidworks로 직접 설계한 것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게 신기했고, 흥미를 느끼다 보니 제가 설계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생겼다고 한다. 전문가 및 산업체 특강, 창의융합교육센터 장비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많았던 덕분이다. 이찬희 학생은 2학년이 되기 전, 메이커 동아리를 통해 3D 설계와 코딩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교내 경진대회에 참가해 용기를 얻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이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가 될 '나'를 기대하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지원하던 때 많은 학생이 관심을 두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 뿌듯하다고 한다.

"2021학년도에는 어떤 인재가, 어떤 학생이 제 후배로 들어올지 궁금하고 내년에 근로자가 되어있을 저를 상상하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멘토링을 통해 입사할 기업체를 미리 방문해서 멘티와 인사도 나누고 현장 견학을 함으로써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가야 할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학업과 일 모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 인재가 되어있을 저를 기대해 봅니다."

자격증 취득이 입사 후 도움이 될 것!

"기업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부와 기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기업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양해, 회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입사한다면 역량 발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찬희 학생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과정 외 기업체 멘토링을 통해 이찬희 학생이 맡을 직무 관련 실무 교과목을 지정해 줬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 외 자격증 취득 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선택을 망설이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누구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대학 생활이 정말 즐겁다는 이찬희 학생.

"일과 공부 둘 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을 하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진학을 선택하여 공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현재 계약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후배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한 번 지원해 보세요. 든든한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교수님과 친구들, 선배들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 전수

"낯가림이 심한 제가 1학년 전체 학생대표라는 역할을 맡게 된 일이 기억에 남네요."

학생대표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모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교수님과 행정실 선생님, 친구들, 선배들까지.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자신이 놀랍다는 이찬희 학생. 선배들에게 학생대표를 맡으면 힘들 거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지만, 지금은 두려움도 없고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며 자신도 놀라고 있다.

07

전남대학교

또래보다 빠른 취업 경험, 시간 절약돼

- **최 수 인** 퓨처아이스

'기회'라는 생각의 전환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떨어지면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도전할 것인지,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최수인 학생도 이런 두려움이 있던 찰나, 우연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되고 재수할 필요 없이 도전할 기회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며 조사한 결과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1기생이라 시행착오? 전혀! 후회 없는 선택

"결정적인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기업체 근무를 병행해 돈을 일찍 모을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근무경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고등학교에 다녔었고 입시 문제로 좌절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있던지라 장학금 지원이 엄청난 혜택으로 느껴져 진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새로 신설된 학과의 1기생이 으레 그렇듯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한다.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지금 역시 이 학과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보다 빠른 현장 실무 경험

"LabVIEW를 배울 때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함으로써 LabVIEW CLAD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의 최종 목표인 개발자가 되는 것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의융합경진대회와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과목을 통해 실무교육 습득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수인 학생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배운다. 배정된 보직은 서버 엔지니어링. 처음 부서에 배치되자마자 서브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부터 배워 CPU, memory, GPU 등을 서버의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방법과 VMware 설치 방법 등 현장의 생동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제 또래 친구들보다 빠르게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어린 나이 덕분에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즐겁게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장하는 사실 배워, 앞으로 기대가 커

초보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최수인 학생. 먼 미래에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의 크기 역시 정비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원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유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만 꿈을 향해 걸어갔다면 막막함에 좌절했겠지만 학교와 기업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으므로 오늘도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과 아쉽게 놓친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점과 장학 혜택을 통해 물질적으로 부담감을 덜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줬습니다. 저의 사례가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업에 대한 깊이가 다르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궁금한 사항들을 사수뿐만 아니라 교수님, 교육에 참여하시는 산업체 인사 등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일을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실무전문가에게 교육받을 기회,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자기 계발에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진학하길 바라

스스로 궁극적인 목표를 세운 뒤 학과와 회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3년 만에 12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데다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기업체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학년·학기별 운영되는 교과목이 정해져 있으니 목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여느 대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을 충분히 만끽하고 싶다면 일반학과에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도움이 될 자신만의 경력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진학하세요. 언젠가 해야 할 경험을 대학 생활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래보다 빠른 취업 경험을 위한 선택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08

한양대학교 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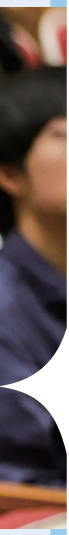
이 학과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 **김 문 선** 스마트융합공학부 / 코우즈벡 항공 화물부

성적이나 자격 조건이 아닌, 가능성을 봐줘

김문선 학생은 어릴 때 몸이 허약했던 탓에 성적 위주의 입시가 아닌 면접과 능력 위주의 입시는 절호의 기회였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어 수업에 참석 못 하는 일이 생기면서 좋은 성적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성적이나 활동보다 다른 것에 집중을 요구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숙지다.

“마침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질문에 체계적인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성적이나 자격 조건이 아닌, 가능성을 봐주셨기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펼쳐질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 학과의 최고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다. 2020년 기준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발표한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 31세. 취업 나이를 10년 당겨 줌으로써 20대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학과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힘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정체되어있던 청년취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제공하는 장점이다. 이에 학생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친구들이 부러워해

"학교에 못 가고 재수하는 친구들과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저를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었습니다. 항상 병원에서 대부분 시간을 썼기에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예상했을 텐데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다니 정말 놀라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주변에서 걱정되는 눈빛도 많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새로 생긴 과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업들인지, 어린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이용당하지는 않겠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거뒀다. 친구들은 김문선 학생을 부러워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느낀다.

"학생이자 직장인이라고 하니 힘들 것 같다는 시선도 있지만, 앞서간다고 봐주는 시선이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 생겨

많은 사람과 대면하고 협업하는 과정은 학교와 직장 모두 빠지지 않는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이 생기고 현실을 직시하기도 한다. 김문선 학생 역시, 일을 진행할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작은 업무조차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업무를 하나씩 진행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차근차근 배우고 진행하면서 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 덕분에 즐거웠던 첫 출장

"첫 출장임에도 마음 놓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고 기억에 남는습니다."

이곳저곳을 들르며 회의 기록을 작성하고 정보를 얻었다. 그러던 중, 회사 측과 연락되어 새로운 업무지시가 실시간으로 떨어졌는데 사소한 임무까지 주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해보고 고등어회랑 몸국도 먹고 오라며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업무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처음 출장을 가면 얼떨떨했을 텐데 회사의 배려 덕분에 출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즐겁게 일하던 중,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는 승객을 대응하게 된 김문선 학생. 나름대로 러시아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친절하게 대응했지만, 승객의 반응은 무심했다.

"알고 보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로 위가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즈벡어를 사용한다네요. 지금은 우즈벡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어 잊지 못할 출장이라 한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겪었던 에피소드

국제처에서 한 밀레라는 단체의 멘토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김문선 학생은 한국으로 오는 교환 학생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형식의 일을 진행하며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마침 교환 학생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있었고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며 현지인들의 현장을 자세히 알게 됐다.

"그때의 지식은 현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다

"좋은 조건의 학과인 건 확실합니다. 빠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을 쌓으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남들보다 배의 배는 앞서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도전하기 전에 이 학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정보를 미리 습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있다. 진학하기 전 자신과 적합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에 들어와 나의 세상은 바뀌었고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어졌으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내 세상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학과와 기업,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할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경험을 맹신하지 말고 지금부터 도전해보려는 기업에 초점을 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업 선택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잘 알아보고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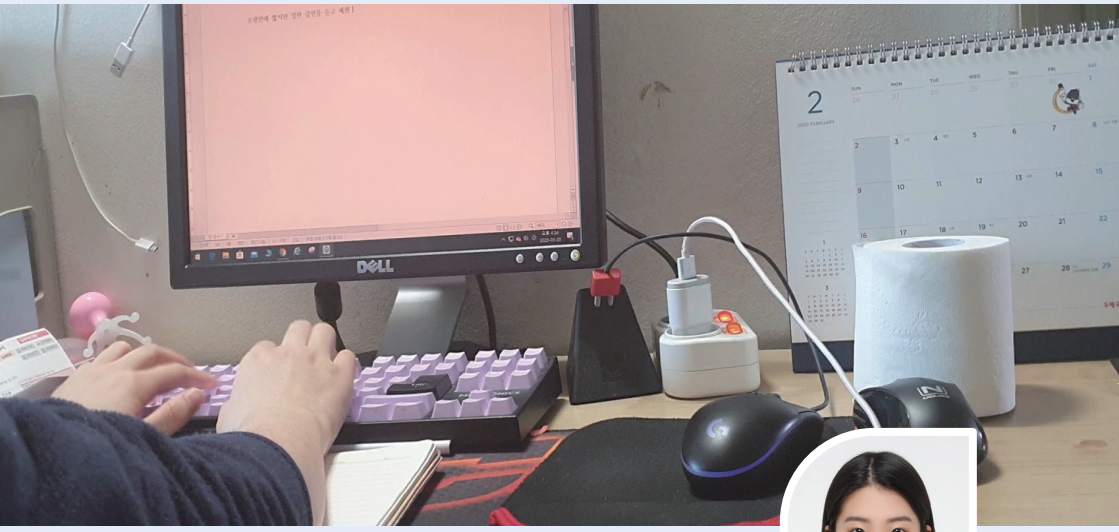
앞으로 기대되는 점?

김문선 학생은 한양대학교 ERICA와 기업에 소속됨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인원수가 적은 학과지만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다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며 다가올 후배들을 벌써 궁금해한다.
"저를 포함해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이 학과를 빛내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흔히 말하는 인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09

한양대학교 ERICA

경제적인 안정감 느끼며 사회생활 시작!



- **김 선 아** 스마트융합공학부 소재부품융합전공

4년 동안 시간 낭비보다 경제력을 갖춘다면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김선아 학생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성적에 맞춰 아무 학과만 들어가면 4년 동안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있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했다.

"차라리 시간이 지나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그때 그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력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금과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2학년 때부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김선아 학생. 가족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학위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응원받으니 더 힘이나

진학 전부터 학교생활과 직장 생활 모두 잘 해낼 거라고 본인도 확신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이 학과를 먼저 추천할 만큼 김선아 학생의 능력을 알아봐 줬으며 주변인들 모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막 1학년 1학기를 보낸 시점으로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들 제가 잘 해낼 거라며 응원해줍니다"

대학생이 되고 물리가 쉬워졌어요

김선아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물포자(물리 포기자)였다. 대학교에 진학해 그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물리학을 제대로 마주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고. 수업 시간마다 작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1학기 학점을 생각보다 잘 받게 되어 2학기에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다며 즐거워한다.

"이런 제가 굉장히 낯설어서 이후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마다 물리를 잘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또래에 비해 큰 경쟁력

1학년 때 학기당 2백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는 학비 전액 장학금과 별개로 주는 것으로 다른 학과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학과를 추천합니다. 학과를 졸업할 때 (20살에 입학하는 것을 기준으로) 23살에 4년제 학위와 회사 2년 경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또래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사소한 꿀팁 전수

"2학년 때부터는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면서 다녀야 하고 평일 일부는 회사 근무가 끝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에, 회사와 학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서 선택할 것을 추천해요."

다음 학기를 위해 해야 할 일?

2학년이 되면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김선아 학생. 그럼 월급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며 2학기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고 한다. 더불어 운전면허와 엑셀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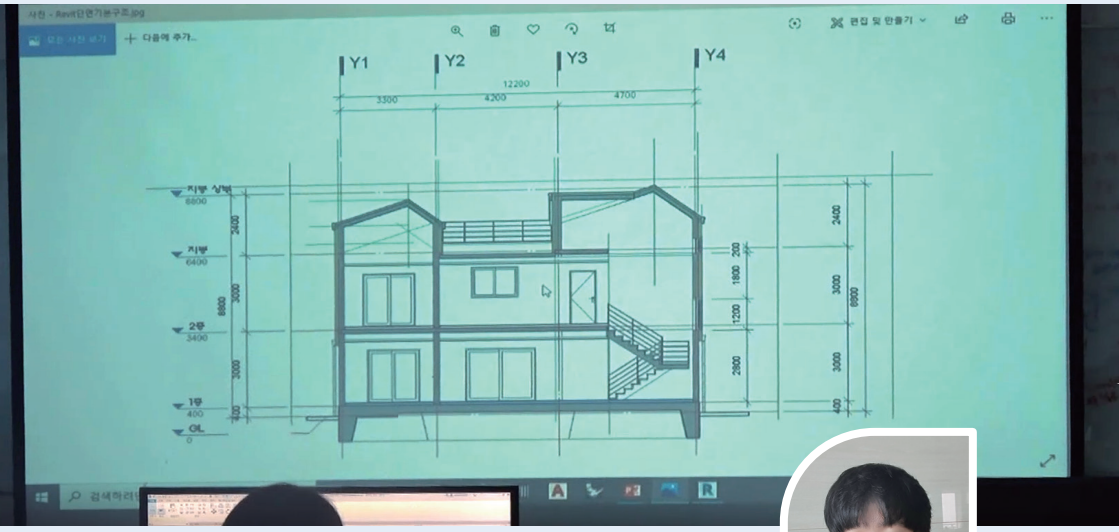
김선아 학생은 모든 고등학생과 입시생들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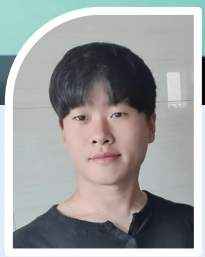
"혹시 이 글을 읽고, 내년에 한양대학교 ERICA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진학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즐거운 기분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10

한양대학교 ERICA

커리큘럼의 압도적인 진도와 실용성, 앞서가는 느낌!





• **심 지 훈** 건축IT융합전공

뒤처진 시간을 만회할 좋은 기회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체능을 했고 이후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취직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던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뒤처진 시간을 만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졸업 후 취업 고민이 해결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무 위주의 수업을 통한 빠른 인재 육성과 학생 관점에서 경력 개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기뻐해

"합격 당시 가족들은 쉽지 않은 커리큘럼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반학생들처럼 대학교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하셨지만, 지금은 취업 해결과 등록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친구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학교 건축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친구 과제를 도와주면서 본 학과의 커리큘럼의 압도적인 진도율과 실용성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좋은 커리큘럼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던 수업 시간. 실무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학습하면서 다른 학교에 비해 빠르게 실력이 늘어났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관심이 필요했던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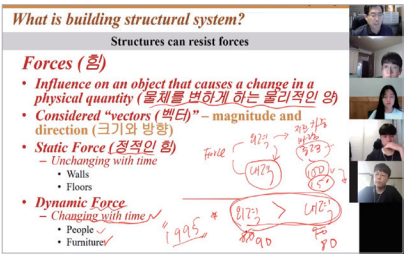
계약 맺은 회사에서 장기간 연락이 없어 걱정이 많았다는 심지훈 학생.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직접 연락하신 대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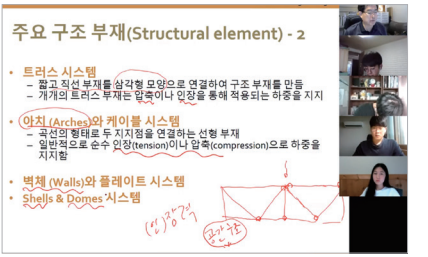
"그때부터 성적도 궁금해하고 회식 자리에도 불러주시면서 응원을 받았습니다. 생소하지만 재밌던 일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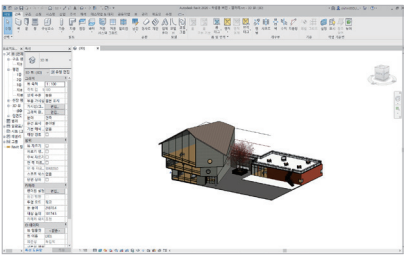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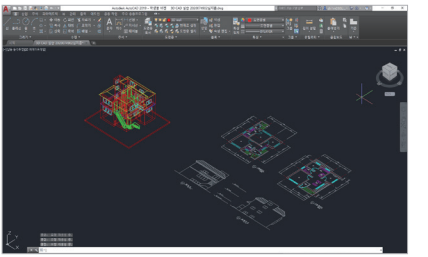
좋은 커리큘럼과 획기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과정에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장점들이 많고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많은 학과임은 분명하다.

"단순히 어려운 과정에 진학을 망설이는 학생이라면 본인을 믿고 진학하길 추천합니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무엇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심지훈 학생은 학과 지원에 앞서 학과 취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바로, 일반 학과와는 다르게 학생인 동시에 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취직한다는 것.

"자신이 어느 한 기업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그 기업에도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학업에 열심히 임할 마음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학기를 돌이켜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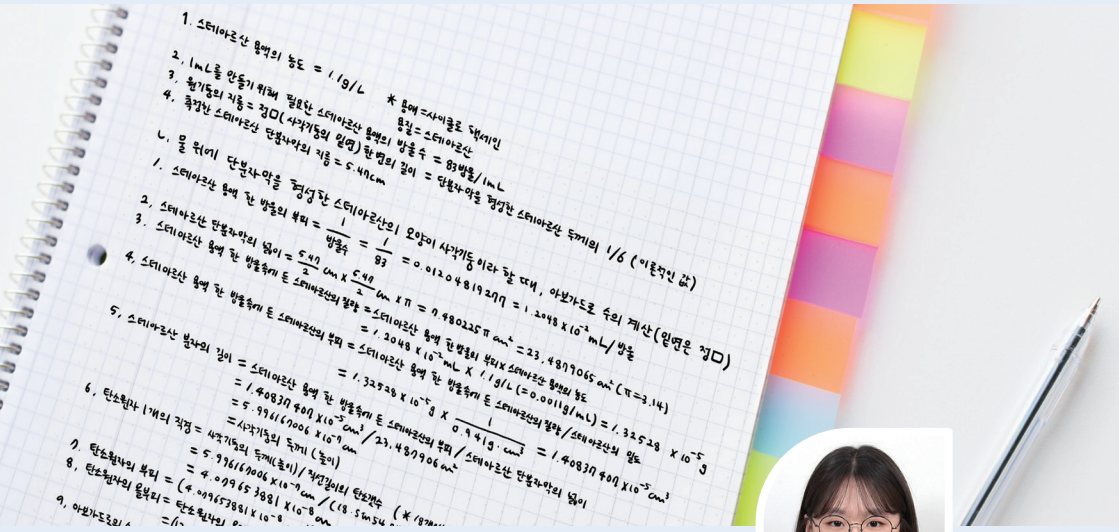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얻고 누렸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심지훈 학생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택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자존감은 높아졌고 그래서인지 곧 실무현장으로 투입하는 날을 기다리며 현장에서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크다. 이제 회사에서 진행할 업무를 위해 더 열심히 학업에 임할 것이며, 회사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우고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새로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11

한양대학교 ERICA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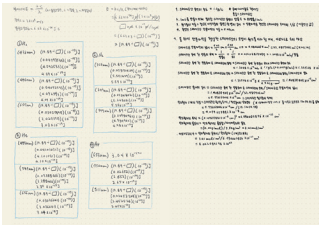


- **최 민 서** 스마트융합공학부 소재부품융합전공

보장된 사회 경험과 입학생 전원 취업

최민서 학생은 '보장된 사회 경험'을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혜택으로 꼽았다. 전공인 재료공학 분야 65개교 평균 취업률은 63.1%로 졸업생 반 조금 넘는 인원만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현실이 막막해 졸업 이후까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생 전원 취업은 물론 졸업 이후 사회생활까지 책임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시와 동시에 입사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안목도 필요하다. 의무 근로 기간 동안 책임감과 생활력 역시 증진할 수 있는 장점 또한 크다. 아직 생소하고 신설학과라는 위험부담과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3년 만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전액 장학 등록금 등이 최민서 학생의 관심을 끌었다.

"1학년 1학기 그리고 여름학기를 거쳐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다독여주시는 모습에 시간이 지날수록 뿌듯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통해 얻게 되는 점?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량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학년도 신입생이기에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1학년 여름학기에 수강했던 물리화학, 유기화학, 공업 수학 과목은 아직 인상 깊게 남는다고 전했다.

"해당 수업들은 모체학과는 물론 타 학과에서도 2·3학년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으면서 강의 자료와 단어들이 영어다 보니 부담감은 물론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지만, 계절학기 동안 아침부터 학술 정보관이 폐관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여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최민서 학생에게 부담감보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대학 생활을 더 값지고 특별하게

"혜택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주위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버는 동안 저는 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으며, 방학 중에는 온전히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서 학생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대학 생활이 아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지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2학년이 되면 월급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에 여전히 학비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는 점에 박수를 보냈다.

'믿음직한 막내'가 되고 싶어

4개월 후면 그렇게 꿈꾸던 사회인이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기대하는 것이 예비 신입사원의 마음이다. 최민서 학생은 최종 합격 이후에 참 똘똘하게 대답을 잘 한다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혹시라도 연구실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밀려오곤 합니다. 면접 날 '믿음직한 막내'가 되겠다고 당차게 말씀드렸기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한 마디 믿고 뽑아준 회사에 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성장하고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아직 남은 2학기와 겨울학기 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하루빨리 회사로 달려가고 싶다는 최민정 학생의 의지는 굳건해 보인다.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학과의 미래가 곧 '나'라는 책임감

최민서 학생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성향이 다르고 무조건 하나의 선택이 옳다고 말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3년 만에 4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우면서 업무까지 양립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길이겠지만, '학과의 미래가 곧, 나'라는 책임감과 어려움에서 얻어지는 분명한 성취감들이 비약적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길, 더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있는 길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후배들에게 이 말 만큼 꼭!

"2020년 정규 수시모집에 포함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지원양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에 대한 정보는 서류 마감 일정 기간 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본인이 진정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회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원 전 문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회사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회사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무엇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전공이 다르므로 어느 학교에 어떤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대학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다.

우리 기업 맞춤형 인재,
가장 먼저 만나보다!

part – 02

기업

- **대동테크** 경일대학교
- **삼일금속㈜** 한양대학교 ERICA
- **㈜승진엔지니어링** 전남대학교
- **㈜한국항공조명** 목포대학교
- **㈜한중엔시에스** 경일대학교

01

대동테크

경일대학교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프로그램!

신기술개발벤처 기업, 대동테크

대동테크는 지난 2000년 5월 설립 이래 20년 동안 축산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 〈축산농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국내외 농축산농가들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품질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이자 신기술개발벤처 기업이다.

우리 회사, 이것만큼은 꼭 자랑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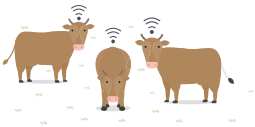
대동테크는 기술 역량 우수기업으로 20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이뤄냈다. 그 결과 25건의 특허 출원, 1건의 실용신안 등록, 4건의 상표권/디자인 등록을 하며 매년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있다. 또한, 측창이 갖춰진 TMR 사료 배합기를 개발하여 NET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

학생과 기업의 담당자, 경일대학교 교수, 연구소 연구원이 협력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R&D를 기획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기술 분야를 더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R&D 기획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입사 전, 관련 기술의 이해는 물론, 업무 적응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관련 분야 타 기업에도 적극 참가를 권유했다.



축산 농가의 첨단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축산 농가의 급속한 규모화로 첨단 생산체계 확립과 보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더불어 농·축산업 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증가 등 문제점 대응을 위한 '현장 수요형' 해결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피해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

▲ 대동테크 발정 감지 센서

다. 바로 〈실시간 생체정보 활용 현장 밀착형 축산 스마트팜 개발〉이다.

이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실시간 생체정보 ICT 기술개발 및 구축', '실시간 생체정보 ICT 기반 개체·환경 관리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전용 스마트팜 설계', '스마트팜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산·학·관·연·농 유기적 네트워크 확립'을 목표로 진행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인가?

대동테크는 소재·부품 분야 뿌리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 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청년 재직자는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도서 구매비 지급 등 자기계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1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묻고 답한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본 과제와 관련된 R&D 기획 결과물을 타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축산 농가의 첨단생산체계 확립'에 자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유연수 담당자는 입사 전 참여한 학생의 대동테크 R&D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

"입사 전에 학생과 회사 담당자, 교수, 연구원이 함께 R&D를 기획함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며 이를 활용한 타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컨설팅을 받은 학생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연수 담당자는 현재 결과물을 활용하여 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진행함으로 R&D 과제의 성공적 수행과정에 대해 숙지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02

삼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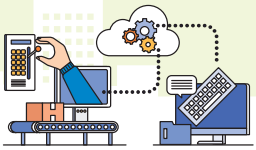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ERICA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줘

매출의 95% 이상 표면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

2020년 초, 한양대학교 ERICA학생과 함께 R&D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기업 IAB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일금속'.

경기도 안산에 있는 표면처리 전문기업으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자동차나 전자 장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아연도금 및 아연합금도 금이다. 사업경력 35년, 법인설립 18년이 지난 기업으로 매출의 95% 이상 표면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이자,



뿌리 기술 전문기업이다. 또 하나의 자랑은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강점이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표면처리 라인 구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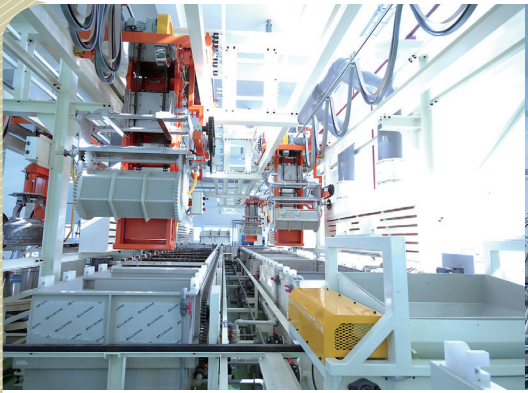
삼일금속은 모든 설비가 자동화되어 근로자의 피로도가 낮다. 최근 스마트화를 위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표면처리 라인을 구축했다. 이후 5년 정도 지나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 중 50%가량은 해외로 수출되고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여 최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확보 시스템 만족해

공식적으로는 학생이면서 회사원이지만, 어리다고 회사의 업무 숙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업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교류가 많아지는 것도 회사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MAN POWER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좋은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매칭된 학생을 통해 느낀 점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동시에 배우면서 진행하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실무형에 조금 더 가깝게 구성되어 실무형



인재에 더 가깝다는 것이 기존 일반대학 졸업 신입사원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 명만 채용하여 진행 중인 것이라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로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들보다 풍부한 경험 쌓기

"공부와 회사생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2배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준다면 먼저 배우고 익히며 쌓인 경력이 인생의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학위를 이수한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우지훈 대표 역시 학교를 통해 들어간 안정적인 취업 활동과 검증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으며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인 만큼 자신이 몸담는 학과의 내용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다재다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묻고 답한다!

앞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관련해 목표가 있다면?

우지훈 대표는 인력의 유입이나 채용이 대기업보다 약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잘 해소해 줄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연구소의 인력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회사발전에 중심이 되는 인재들이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하며 좋았던 점?

"표면처리업종에서 필요한 품질 관리와 검사에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배출하는 정식 교육기관이 없었는데 한양대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되어 참여했습니다."
우지훈 대표는 업종의 특성상 청년들의 입사 지원이 많지 않아 항상 아쉬워했지만, 이를 해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반가웠을 것이다. 학생들도 3년간 업무 경험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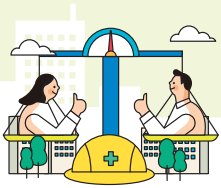
㈜승진엔지니어링

전남대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을 직접 보니 믿음직스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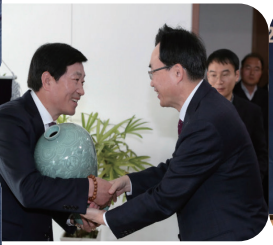
전남지역 스타 기업에 선정된 ㈜승진엔지니어링

1990년 설립 이래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승진엔지니어링은 수입에 의존해오던 주요 소재 국산화 개발과 기존 플랜트 공정효율을 개선하는 성과로 국가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철저한 품질 및 납기관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사회적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과 장학금을 전달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상을 시작으로 2019년 여수시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CEO 비전·철학, 성장 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 역량, 워라밸, 사내 문화, 승진 기회·가능성, 복지·급여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남 지역 최초로 2019 일하기 좋은 최우수 중소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인 올해는 전남지역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량을 넓힐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승진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타워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전문 제조업체이지만 가공, 용접, 공사, 수입 납품, 판매, 유지보수 등 한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경력을 쌓을수록 근로자 본인의 역량을 넓힐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장기근속자'가 많은 특징을 가진 말 그대로 일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

중소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인력난이다. 더불어 매년 대두되고 있는 청년 취업률 문제를 동시에 해소한다는 사업 취지를 듣고 지역 선도 중소기업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라 생각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방향을 먼저 반영함으로써 기업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근무가 시작되는 초창기부터 현장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더불어 의무종사 기간까지 최소 2년 10개월 이상의 장기근속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과 수시로 교류하며 원활 근무 가능해

특강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점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설정 등을 함께 고민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채용 약정된 학생과 수시로 교류함으로써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1년간 어떤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지 등을 알려주어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한 업무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내 창의융합교육센터에 구축된 공간과 장비들을 비용부담 없이 공문 제출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 적응력이 뛰어나 믿음직스러워

기존에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온 신입사원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히기 위한 교육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한 직원은 다르다.

"대학에서 1년간 기업 맞춤형 집중 교육을 받고 입사하였기에 실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차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산학협력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멘토링을 통해 입사 전부터 기업체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과 공유할 기회가 자주 있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믿음이 가는 점도 좋았다고 한다.

학생을 보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취지를 실감해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CAD 교육을 미리 마친 후 입사하여, 현장에 바로 했습니다. 주요 부품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등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취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채용약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이 열심히 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정철섭 대표는 내년, 내후년에도 채용약정이 된 학생들이 이곳에서 근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또한, 주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힘쓰고 과제 수행에 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채용 학생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묻고 답한다!

향후, 학생에게 기대하는 점? (또는 참여했던 학생에게 한마디)

멘토링을 통해 만났던 내년 입사 예정인 학생 중 전문적인 용접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 향후 전공 기초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학생이 업무에 배치될 것이라 회사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사 전이라도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단체행사 등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친목도 다져 입사 시 회사 적응력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 경험, 능력 개발에 도움 될 것

㈜승진엔지니어링은 2021학년도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명의 학생에 대해 채용약정을 한 상태다.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업에서는 환영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편안함만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단순 업무를 하는 대기업 오퍼레이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와는 차별화되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 판단됩니다. 기업의 비전을 보고 본인의 능력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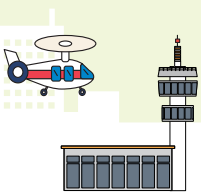
㈜한국항공조명

목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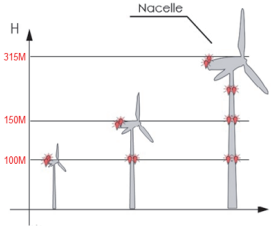
맞춤형 우수 인력양성은 회사의 경쟁력!

전 세계 항공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항공등화 전문 업체'를 향해

㈜한국항공조명은 2017년 설립된 항공등화 전문 제조회사로 설립 초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후 여러 종류의 항공장애표시등, 헬기장 조명시설, 태양광 PV모듈 등 ICT 기술융합 사업화 중에 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항공법에 의거 150m 이상 고층 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표시등으로, 현재 기존 제품인 '태양전지식 항공장애표시등'은 한전의 신뢰품목에 등록되어 약 1,500개의 송전탑에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이곳에서 개발한 항공장애표시등은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주 경기장에 설치됐었고 2018년에는 한국전력 규격에 따른 송전탑용 태양전지식 항공장애표시등 개발 및 공인시험 성적서를 획득하여 현재 한국전력에 공급 중이다.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SIEIMENS, VESTAS, 두산중공업 등에 풍력발전기용 항공장애표시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및 유지보수, 설치비용을 고려한 풍력발전기 타워 관통형 항공장애표시등을 개발하기도 했다.



▲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 현황

딱 맞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전공 수업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지식을 익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큰 장점이다. 특히 근무하면서 그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공등화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른 특정한 색채 및 광도, 빛 발산각과 섬광 등의 국제항공법에 따른 규정이 있어 수준이 높은 광학 기술과 제어회로 기술이 필요하다.

"전남권에서는 실제 관련 전문 인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목포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협약하여 점차 연구개발, 품질경영, 전문생산 인력 등을 양성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공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워 회사 업무에 도움을 줘

"사업장에서 인력양성에 절실히 필요한 전문 교육과 업무수행을 동시에 함으로써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강점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조명에서 근무하는 학생의 경우 현업에서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희망에 따라 부서변경을 통해 관심 있는 업무를 맡아 수행 중이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처럼 우수인력이 산업 현장에 배치되면서 개인과 산업체 상호 간 큰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학생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일꾼을 양성하는 목포대학교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학업과 현업 동시 수행으로 현장에서 격차 사라져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업무 관련 지식을 숙지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환영할 제도라 여겨진다.

"기존 신입사원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토대로 회사에서 시행하지만, 학업과 현업의 격차가 존재하여 이를 매칭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본 학과는 현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실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이 양성됨으로써 기업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경쟁력이 큰 장점이 됩니다."

기술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 ▶

사전 이해도가 높아 만족스러워

매칭된 학생은 수업 때 익힌 회로설계 프로그램으로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에 PCB 관련 연구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학과의 특성상 학생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고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이 준비되어 산업체 종사 현업에서 사전이해도가 높아 업무에 빨리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회사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해

강대용 대표는 '스펙보다 인성'을 외치는 곳이 기업이라는 말을 전했다. 라이트브레인은 최고의 스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브레인이라는 공동체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동료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보통 업무에 선 긋기보다는 다 함께 힘내자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태도 하나가 사내 분위기는 물론 회사 성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항공조명은 특히, 팀 프로젝트와 다른 부서 간의 협의 등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때 올바른 인성을 기초에 두고 창의력과 열정을 보여준다면 회사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남들과 달라야 경쟁력이 있는 것

학업과 업무가 병행되는 만큼 학생에게는 경쟁력을 가질 기회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은 시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강대용 대표는 학생에게 이렇게 전했다.

"사회는 경쟁입니다. 그 경쟁에서 앞서거나 이겨낼 힘을 경쟁력이라 합니다. 사회에서의 평가는 다른 인물과의 우월적인 경쟁력을 요구하며

다른 누군가와 유사한 과정을 보여준다면 그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

업무 중에는 PV모듈과 ESS, 항공 및 활주로 등화 등의 KS 인증 규격 및 국제규격 등의 자체 스터디와 실무에 필요한 외부교육 정부 과제 및 지원사업에 참여 했으며 태양광 PV모듈 제조라인 셋업, ICT 기술융합, 광학설계 및 회로설계, 기구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품질전문가 양성 교육에서는 LIGHTTOOLS, ZEMAX, (광학설계) PADS, ORCAD (회로설계), AUTOCAD, SOLIDWORKS (기구설계) 등의 프로그램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협회 교육, 박막증착 기법 관련 교육, 방폭설계교육, 전자파(EMI) 차폐 디버깅, 전기전자회로 SAFETY 디버깅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묻고 답한다!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비전은 어떤지?

"우리는 공항 및 활주로, 헬기장 등에 설치되는 특수조명 항공등화의 사업화가 목표입니다."

항공등화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사고와 직결된 제품으로 제품의 높은 신뢰도와 강한 내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약 45종 이상의 제품으로 나누어지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전지와 ESS의 기술을 접목해, 4차 혁명의 ICT 융합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항공등화와 ICT 감시·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품개발을 진행하고자 자체 혁신 R&D 센터를 증축하였으며 향후 5년간 매년 4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장 확장 및 신규고용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5년 이내 매출 300억 고용 창출 인원 10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에게 기대하는 점?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수업의 부분을 업무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주 활용하지 않는 지식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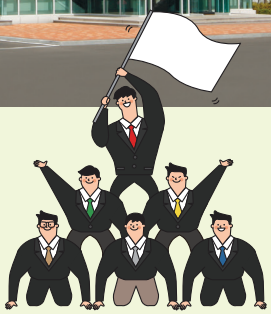
"학교 수업이 업무와 크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잘 배워 업무능률을 높였으면 합니다."

05

㈜한중엔시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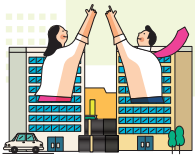
경일대학교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줄일 수 있어!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한중엔시에스는“No Future Without Change”라는 사훈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력 생산제품은 전기차의 제동시스템(EVP), EVP-Controler, Sensor, Cooling Fan 등 공조부품, 전기차 2차전지 부품, 배터리 센서 등으로 미국, 중국에 각각 법인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업과 다르게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어 품질 경쟁력과 가격경쟁력, 납품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업을 참여한 계기는?

㈜한중엔시에스가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게 된 세 가지 계기가 있다.
첫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맞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입학에서 졸업까지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현장실무 적응력이 강한 인재를 통해 R&D 역량 강화는 물론 기술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셋째, 중소기업의 여건상 입사 후 1년 이내에 이직의 발생이 높은 데 반해 본 제도에 의해 선발된 사원은 기업근무의 만족도가 높아 기업의 인재 확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매칭된 학생을 통해 느낀 점 (실무-교육 연계 중요성)

회사업무에 필요한 실무중심교육을 입사 전에 경험함으로써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2학년 재학 중에는 부족한 실무교육과 연계된 교육을 받기에 업무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D 고도화에 필요한 인재로 적극 활용 예정

중소기업은 인재 확보와 재직자의 교육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인재의 조기 확보와 기업의 R&D 고도화에 필요한 인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한중엔시에스는 현재 재학생, 고교생을 대상으로 본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팩토리 공장 현장 견학, 그리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운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묻고 답한다!

기존 신입사원과의 차이점이 있나?

"현장 직무 능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 대한 긍지, 사명감 등이 높아 맞춤형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2~3학년에서 최대 야간 2일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기업 실무와 연계한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습 부담이 줄어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언급했다. 또한, 일반신입사원보다 직무 분야 적응력이 높고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업무추진의 열정으로 이어져 기업 혁신성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중엔시에스가 바라는 인재상?

"우리 회사 사훈인 'No Future without change'처럼 미래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김환섭 대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현재 업무량에 머무르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오랫동안 본사와 함께하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풍부한 장학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처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자인·제작	주식회사 동진문화사 (02-2269-4783)

※본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